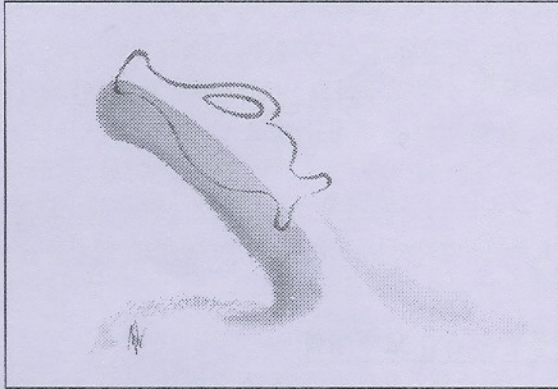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29권 19호(나해) 2009 · 4 · 5

[묵상]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마르 14,8)

그에게 남은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우리가 우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우리가 바랄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조롱과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를 벌 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는 나았다.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해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이사 53-2-12 참조)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원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1:00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정완현 안드레아, 정계우 요왕, 엄은섭 도로테오
특전 미사	(생)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율리아, 조지 가보라, 장수창 요한과 주란 마리아 가정, 박진현 로사, 한신 라파엘, 강정현 시몬, 박지혜 수산나, 이경훈 루카, 김풍길 바오로와 제희 모니카 가정
주 일	(연)김수환 추기경, 차정진 마리아, 한삼만 요셉, 이금순 마리아, 이계옥, 고준희 제임스, 이상현 베드로,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이영자마리아, 김서운레, 주옥금 마리아, 양갑순 마리아
낮 미사	(생)최석원 클레멘스, 최한나, 배은주, 양영은, 황유선 비비안나, 이석제 베드로 가정, 권진열 피테스 가정, 오진 베드로, 김홍균 스테파노, 김나영 마리아, 김별 스텔라, 신종신 다니엘과 영애 켈마 가정, 신철규 미카엘, 윤대옥 다니엘과 아림 율리아나, 조옥중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0,4-7

화답송 ○하느님, 내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전례성가 67, 성지주일>

- 사람마다 저를 보며 업신여기고, 머리를 끄덕대며 비쭉거리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렵다, 그를 사랑하시니 빼내주시렵다.○
- 술한 개들이 저를 둘러싸고, 악한 무리 이 몸을 에워쌌나이다. 그들은 제손과 발을 사뭇 뚫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저희끼리 겂옷을 나눠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나이다. 주님,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구원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 저는 당신이름을 거례에게 전하고, 그 모임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오리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찬양하여라. 야곱의 후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모두 다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제 2독서 필리피(Philippians) 2,6-11

복음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환호송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

수난복음 마르코(Mark) 14,1-15,47<또는 15,1-39>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1	
봉헌	257	261,259
성체	주 품에 품으소서	284,298
파견	149	149

26.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 조직과 연대의 권리

노동의 주체와 목적은 인간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위하여 노동이 있는 것이지 노동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노동 행위나 경제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모든 사람이 노동을 통하여 단순히 기본적인 의식주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에 알맞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사회 질서와 경제 정의를 요구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서로 긴밀한 의존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개인의 능력은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조직과 연대는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직업별, 직능별 단체를 결성할 자연적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공동선을 위한 노사 협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공동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중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노동자들은 일할 권리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 등의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임금의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를 올바르게 대하며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기업가는 단순히 이윤의 증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선익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여 주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투명한 경영을 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보장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소유권과 그 한계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며 좋은 일이다. 재화(財貨) 자체는 선하신 하느님의 창조물이므로 원칙적으로 선한 것이다. 그러나 부(富)를 독점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일은 죄악이다. 재산의 소유권은 기본적인 것이다. 소유권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결과에 대하여 남들이 간섭할 수 없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산은 사회적 성격도 띠고 있다.

하느님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인간이 함께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과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져야 하며,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서 알맞은 수준을 넘는 여분의 재산을 자선이나 애덕에 사용할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자기가 쓰고 남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요긴한 것까지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CBCK 제공 - 계속)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서울대교구는 4월5일 김수환 추기경님 공식 추모 기간을 끝내면서 평화방송·평화신문과 함께 “감사와 사랑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부활 기간 동안은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합니다”로 정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동료 등은 자칫 쉽게 지나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랑의 정을 표현하도록 권고합니다. 사실 한 번도 사랑의 정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혹은 직접 사랑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미소를 짓고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쉬운 일 같지만 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사만 잘 해도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이를 포용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특히 나와 다른 생각,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흔히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거나 식견이 좁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적이라 생각하면 다른 생각과 사고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는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때로는 적대적이 됩니다.

오늘 수난 복음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크게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노래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환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고대하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전능하신 힘을 지닌 구세주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구세주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위대함을 세상에 다시 한 번 드높일 것이라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때 오늘날의 슈퍼스타가 부럽지 않을 인기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얼마 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님을 영웅처럼 떠받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다분히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폭력과 무조건적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주장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게 기대를 걸었던 유대인들은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그때 그 군중처럼 예수님께 오직 현세적인 행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순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까지 묵묵히 가셨는지 말입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폴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부활성야미사	학생 미사	부활대축일미사
해설자	최진수 에우세비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제3독서자	이민상 요한 권순길 체칠리아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제5독서자 제7독서자	이재용 안드레아 이혜선 안젤라		제2독서자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사목회		토런스 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주일

예수님께서는 바스카의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 당신의 도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수난을 앞두고 우리는 특히 성금요일에 단식과 금욕으로 재를 지킴으로써 주님의 죽음의 신비속에 더욱 참여하게 됩니다.

◆ 성삼일(The Easter Triduum) 전례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 4월9일 오후 8시
† 수난감실 성체조배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 : 4월10일 오후 8시
† 십자가의 길(오후 3시)
- 성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 / 세례식 : 4월11일 오후 9시

◆ 부활 대축일 미사(4월12일)

- 학생미사 : 오전 9시 30분 ● 교중미사 : 오전 11시

◆ 사순절 희생 애공봉투 봉헌

- 희생과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 9일)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교실, 화장실, 친교장,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토요일전과 아침미사 참례자들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일시 : 오늘 주일(5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게시판 안내 참조
- ◆ 부활반 예비자 받아들이는 예식
- 일시 : 4월8일(수) 오후 7시 30분 저녁 미사 중에.
 - 대부 대모님들 필히 참석하십시오.

◆ 4월 병자 봉성체

- 병자 봉성체 : 9일(목) 오전 9시30분부터(아침미사 없음)

◆ 발씻김 예식 참여를 원하는 분들 신청하세요.

- 성 목요일 주님만찬 저녁미사 중 발씻김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자는 전례부장 김명숙 루실라 자매에게 신청하기 바랍니다. ☎ (310)404-6012, 544-9532

◆ 한국어 Virtus 트레이닝 교육

- 일시 : 4월18일(토) 오전 10시30분~12시30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
- 대상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학생 등 가톨릭 교회내 미성년자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성인들은 LA 대교구 방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문의 : 최안젤라 자매(벨리성당) ☎(201)906-2433

◆ 백삼위 본당 견진성사

- 교육일정 : 4월21일(화)~24일(금) 오후 7:30~9:30
- 견진성사 : 4월2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에
- 주례 : Bishop Alexander Salazar (San Pedro Region)
-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서두르십시오.
- 문의 : 종교교육분과 최재은 베드로 ☎694-458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5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 4월 12일(부활대축일) : 성모회(전신자 부활떡 나누기)

성 목요일 성체 조배 시간표 (4월9일)

시간	담당 구역	시간	담당 구역
성 목요일 밤 10시 ~ 11시	성가대	성 금요일 새벽 2시 ~ 3시	토렌스 동
성 목요일 밤 11시 ~ 12시	수녀님	성 금요일 새벽 3시 ~ 4시	토렌스 서
성 금요일 자정 ~ 새벽 1시	P.V.	성 금요일 새벽 4시 ~ 5시	토렌스 남
성 금요일 새벽 1시 ~ 2시	하버/카슨	성 금요일 아침 5시 ~ 6시	토렌스 북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구본엽	권오상	김교복	김주량
	김태호	노찬술	박선형	박수익	박연실	박재철
	박정희	박종열	박현주	박현주	신경훈	엄정자
	오세원	오일순	유영균	유영희	이병우	이석제
	이석진	이호미	조영희	최미열	하정화	
	합계 : \$3,640					
미사헌금 : \$3,040.50						

성전헌금	구본엽	권오상	김교복	김주량	노찬술	박선형
	박수익	박연실	박재철	박정희	박종열	신경훈
	엄정자	오세원	오일순	유영균	유영희	이병우
	이석제	이호미	조영희	최미열	하정화	
						합계 : \$2,965
감사헌금 : 익명, 김병철						부활초 봉헌 : 서명교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부활절 방학

- 오늘 주일(5일)과 12일 주일: 주일학교/한국학교 수업없음
- 오전 9시 30분 학생미사는 꼭 참석하세요.

◆ 부활절 계란 장식

- 일시: 4월11일(토) 오전 11시, 강당 ● 대상: K~6학년

◆ Egg Hunting/그림 전시회

- 일시: 부활 대축일(12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후 성당 잔디밭에서 달걀찾기 행사가, 천교장에선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나의 예수님' 그림이 전시됩니다.
- 이날은 수업과 점심이 없으므로 행사후 바로 자녀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함께 미사와 행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끝나는 예정시간: 오전 11시)

◆ 은총시장 행사

- 일시: 4월19일(주일) 학생미사 후 각 반별로 있습니다.
- 초등부 학생들이 사순시기 중 기도문 암기, 주일미사 참례, 성경쓰기 등으로 얻은 포인트에 따라 선물을 받게 됩니다.

◆ 2009년 상반기 한국학교 교사 연수(중급과정)

- 일시: 4월29일~5월22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백삼위 본당 강당
- 교과목: 창의적 사고력 키우기, 읽기교육, 문법, 쓰기, 글짓기, 중급반 모델수업 등
- * 문의: 이헬레나 본당 한국학교 교장 ☎(310)347-8765

남가주 소식

◆ 성유 축성 미사(Chrism Mass)

- 일시: 4월6일(월)오후 7시
- 장소: LA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제6차 신약 성경 통독 피정

- 일시: 5월8일(금)오후 2시30분~10일(주일) 오후 5시30분(2박3일)
- 장소: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37885 Hwy. 79S. Temecula, CA 92592
- 대상: 일반인
- 준비물: 성경, 성가책, 세면도구, 침낭, 편안한 신발
- 피정비 \$110
- 신청문의: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신원화 데레사 533-9538 4/24(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4/18(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4/17(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틀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4/19(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철우 야고보 373-8340 4/8(수) 오후 7시, 양산박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미성 미리암 429-6204 4/16(목)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오창애 안나 326-1519 4/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김율리아나 325-6982 4/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최미열 클라라 895-8624 4/17(금) 오후 7시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4/17(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유근우 알렉시오 735-3721 4/17(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도완 다니엘 892-1213 4/1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프란체스카 가보라 265-0495 4/16(목) 오전 10시, 성당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 테살로니카 1서, 테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에페소서 - 하느님 구원계획의 신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 (1) ◎

에페소서는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 교회에 보낸 서간으로 필리피서, 필레몬서 및 콜로새서와 함께 옥중서간이라 한다. 옥중서간이란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콜로새서와 함께 바오로가 직접 썼는지에 대한 친저성 논란이 있는 서간이다. 에페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첫 부분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에 관한 교리를, 둘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와 도덕에 관한 훈계를 담고 있다. 성령의 인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답게 선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맺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서간의 전반적인 어조는 엄밀한 의미의 편지라기보다는 강론 또는 지혜문학에 가깝다. 실제로 서두인사(1,1-2)와 미미한 소식, 그리고 끝인사(4,21-24)를 빼놓고 보면 본문에는 편지라고 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 에페소는 어떤 곳인가? : 에게 해 연안 소아시아(터키) 쪽에 있는 에페소는 기원전 1000년쯤에 세워진 항구 도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재위 BC 27-AD 14) 시대에는 로마제국 아시아 속주의 첫째가는 도시로 성장했다. 상업 중심지였으며 주민 수가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가 살았다는 전승이 전해지는 에페소에는 마리아에게 봉헌된 첫 성당이 350년쯤에 세워졌다. 431년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에페소 세계 공의회가 개최된 곳이기도 하다. 에페소는 7세기 이후 무슬림의 공격을 받았으며, 1426년 오스만 터키에 점령당했다. 오늘날 에페소는 옛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거대한 고대 유적지로 많은 순례객의 발길을 끈다.

사도 바오로는 2차 선교여행(50-52)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에페소에 들른 적이 있었고(사도 18,19-21), 3차 선교 여행(53-58) 때는 3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폈다. 바오로 사도는 이곳에서 코린토서와 갈라티아서를 썼으며, 옥중 서간인 필리피서와 필레몬서도 이곳 에페소에서 갇혀 있으면서 썼을 것으로 추정한다.

◇ 에페소서는 바오로의 친서인가? : 전통적으로 에페소서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61-63년) 쓴 옥중서간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에페소서에는 바오로가 직접 쓴 다른 서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휘가 적지 않은데, 이 어휘들은 바오로 사도 이후 초기 교부들의 문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 바오로 사도의 친서들에서는 볼 수 없는 문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아가 서간에 나타나는 신학적 주제들도 바오로 사도의 친서들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다른 서간들에서는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이 서간에는 그런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 에페소서가 바오로 사도의 친서가 아니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학자들이 많다.

◇ 콜로새서와의 관계 : 바오로 사도의 다른 서간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에페소서는 이상하게도 콜로새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 에페소서의 어휘들이 콜로새서에는 비슷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리적 주제들도 비슷한 게 많다. 또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대목들이 눈에 띈다. 예컨대 에페소서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충실한 일꾼인 티키코스”(6,21)는 콜로새서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충실한 일꾼이며 나의 동료 종인 티키코스”(4,7)로 언급된다.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을 들어 또 교리적 주제들이 유사하면서도 에페소서의 것이 조금 진전된 내용임을 들어 학자들은 에페소서가 콜로새서보다 조금 후대에 쓰였다고 보고 있다. 에페소서는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콜로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자기 시대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평화신문 이창훈 기자]